진안군산림조합 "입목벌채 대행합니다"...연중 접수

(전북=뉴스1) 김동규 기자 | 2022-06-29 12:35 송고



전북 진안군산림조합이 입목벌채를 희망하는 산주를 대상으로 연중 벌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.(진안군산림조합제공)2022.6.29/뉴스1

전북 진안군산림조합(조합장 전해석)은 입목벌채를 희망하는 산주를 대상으로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.

특히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우 벌채 시 납부하는 조림자부담금을 전액 국고로 보조하고 있어 산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.

진안군산림조합은 벌채사업 시 발생하는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대행위탁벌채(후정산벌채)와 온비드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최고가 낙찰을 통한 벌채대행서비스를 병행해 산주의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.

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을 실시하면 높은 값으로 목재를 판매할 수 있는 장점

이 있다.

전해석 조합장은 "진안군산림조합은 벌채를 통한 산주의 소득증대를 최우선에 두고 벌채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"며 "앞으로도 꾸준한 노력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산주와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겠다"고 말했다

<저작권자 © 뉴스1코리아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